

제35회 초·중·고생 백일장 4월 25일 시민공원서 개최

부산진구는 오는 4월 25일(토) 오전 10시 부산시민공원 향기의 숲 일원에서 '제35회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진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학생들은 당일 발표되는 화제를 주제로 그림 및 글짓기 분야에서 자유롭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

참가신청은 4월 9일부터 24일까지는 방문 또는 이메일로, 4월 25일 오전 10시까지는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진구청 1층 백양홀에서 전시된다. 문의: 문화체육과 예술계(605-4631)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부산진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토지 및 임야 총 5만7,533필지의 지면별 m²당 가격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부산진구청 홈페이지(<http://www.busanjin.go.kr>),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견서에 의견 내용 작성 후 직접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문의: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계(605-4752~4755)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 3월부터 지역서 일제 실시

부산진구는 3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추천받은 단체원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필요로 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불법광고물을 수거·정비한 뒤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구는 지난달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주민 중 57명을 선정, 불법 광고물 수거 방법과 작업 안전 사항 등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다.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 현수막 1장당 3,000원, 족자형 현수막과 벽보(A3 이상) 1장당 1,500원이며, 주말 공휴일의 경우 일반 현수막 1장당 4,000원이다. 문의: 도로관리과 광고물관리계(605-4628)



개학맞이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 부산진구는 새학기 개학을 맞아 3월 3일 동원초등학교 일원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아이 먼저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부산진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진구지회, 학교 관계자 등 민·관·학 60여 명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문의: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아빠와 살던 중학생 딸, “요술처럼 내 방이 생겼어요!”

연지동 민·관 협력으로 꽃피운 ‘희망의 공간’ 저소득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사업 효과 특특

부산진구의 한 동 주민센터와 지역 유관단체,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좁은 공간에서 아빠와 살던 중학생 딸에게 자기 방을 만들어 줌으로써 잔잔한 감동을 전한다.

연지동주민센터(동장 박미옥)는 3월 15일 한 저소득 부녀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이 가정은 아빠와 중학생 딸로 구성된 2인 가구다. 하지만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며 생활공간 분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집에 쌓인 불필요한 적치물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

로 인해 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게 된 성지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사랑의열매 행복봉사단, 연지동청년회, 연지동주민센터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날 봉사자들은 곳곳에 쌓인 적치물을 처리하고 가구를 정리하는 등 대대적인 작업을 펼쳤다.

도움을 받은 중학생 자녀는 “나만의 공간이 생겨 정말 기쁘다. 꿈만 같다”라고 말했다. 아빠도 “많은 분의 도움 덕분에 깨끗해진 집에서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뭐라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연지동주민센터(605-6572)

부전1·초읍·전포1동... 정겨운 마을마다 장학금 봇물

새 학기를 맞아 부산진구 각 마을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봇물 터지듯 넘치고 있다.

부전1동새마을금고(이사장 추연중)는 지난 2월 27일 취약계층 중·고등학생 1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초읍동 새마을장학회(회장 이상수)도 같은 날 초읍동주민센터 성지홀에서 '제41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중고생 10명에게 총 700만 원(학생당 7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초읍동새마을금고(이사장 임진성)는 지난 2월 25일 '2026년 장학생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초읍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4명이 각 200만 원씩, 중·고등학생 19명이 각 70만 원씩의 장학금(총 2,130만 원)을 받았다.

또 전포1동새마을금고(이사장 이용식) 역시 지난 2월 27일 수여식을 열고 지역 고등학생 16명, 대학생 11명에게 총 1,900만 원(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 대학생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진구 - 부산중앙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업무협약

부산진구는 3월 18일 부산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박수용·사진)와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를 기존 자치단체 금고 외 금융기관에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건전성, 보편연계 가능 여부, 적용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검토해 협약을 추진했다. 문의: 기획예산과 예산계(605-4025)



김윤환 영광도서 대표 모범납세자 표창

김윤환(사진) 영광도서 대표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영광도서는 2022년 '부산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동안 책 이상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 공간으로 저자 강연회, 문화 강좌, 전시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성실한 납세 이행과 책임 있는 기업경영으로 투명한 재무관리를 실천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윤환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납세의무와 윤리 경영,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